

2017 전국육계인대회

대한민국 육계인의 기분 좋은 화합! 새로운 도약!



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9월 25일 충북 대천 소재 호텔 머드린에서 ‘대한민국 육계인의 기분 좋은 화합!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전국 550여 명의 육계인이 모인 가운데 ‘2017 전국육계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회 및 육계산업 발전에 힘쓴 육계인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농촌진흥청장상 등의 시상이 이루어졌으며 시 방역교육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 김도환 센터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본지 144쪽 참조).

본회, 포천농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시 방역 추진상황 점검

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포천 지역 가금농장을 방문해 농가의 예찰 및 소독 등 차단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 및 포천시의 시 방역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경기 포천은 최근 3년간 2번 이상 시가 발생한 지역이며, 차량 이동이 많은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으로 시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시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본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가에 가금사육농가 간 모임 금지, 축사 내 철새 유입방지, 축사 출입시 전용 장화·의복 갈아신기 및 농장 내·외부 소독 철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도 제3차 이사회

하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본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0일 세종시 세종한우 청사점에서 2017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21대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

향으로는 △2017년도 3/4분기 사업추진 실적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추진사항 △시 추진사항 △계란·닭고기 자조금 관련 사업이 있었다. 논의 사항으로는 △전국 채란인 쉼기대회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양계산업 희생을 위한 양계인 쉼기대회로 확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란 일자 표기뿐만 아니라 닭고기 검사확대 반대, 살충제 기준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관리 일원화 등 양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확대 진행키로 했다. 또한, 계란 유통인들도 함께 참여하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

해남 계곡면노인회에서 계란 소비행사 개최



본회 닭경제능력검정연구소(전남 해남군 계곡면 산56번지 일원)는 지난 19일에 연구소가 있는 해남군 계곡면에서 개최된 ‘제21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계란소비행사를 개최했다. 매년 해남군에서 개최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어르신과 주요기관·단체장이 참석하고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본

회에서는 ‘하루 계란 2알은 보약입니다’라는 구호로 1인당 3알씩 계란을 나눠주었다. 이번 계란 소비행사는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의 높은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채란위원회

채란산업발전을 위한 쉼기대회 10월 25일 개최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지난 10일 대전 유성 라온 컨벤션 호텔에서 채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란노계 도태 지연 심화 현상을 해소하고자 9월에 진행했었던 산란성계 랜더링 사업의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또한, 산란 일자 표기 관련 의견을 의논하였고 시 특별방역 기간을 맞아 시 긴급 백신 접종 시스템 구축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알리며 참가 신청을 안내했다. 한편, 채란산업발전을 위한 쉼기대회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채란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산란 일자 표기 입법예고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케이지면적 확대 등 정부의 규제 정책에 관해 채란인의 의견을 행동으로 실행하기 위한 쉼기대회는

지난 10월 25일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2시부터 열렸다.

채란발전위원회

채란발전연구회 운영 논의

채란위원회(위원장 남기훈)은 지난 10일 대전 유성 라온 컨벤션 호텔에서 채란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채란발전위원회는 양계협회 채란위원회 내에 채란산업발전을 위한 연구회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업에서 채란산업의 위상을 키워보자는 의미로 건의된 채란발전연구회는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종계·부화위원회

산업 현안 논의



종계·부화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18일 충남 천안 대명가든에서 종계·부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0월 2일부터 시작한 육계 실거래가격 발표의 현황 및 발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부의 시 방역개

선대책 중 살처분 가격 보상 관련 개정안에 대해 점검하고 계란 살충제 파동 영향으로 육용종계의 도태 지연이 심화되는 관계로 종계성육육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토의하였다. 한편, 제20대 종계부화위원회 출범에 따른 종발기금 거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지회·지부 소식

연천육계지부

연천 양계인의 밤 개최



연천육계지부(지부장 임달수)는 지난 13일 경기 연천군 전곡제일뷔페에서 양계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오세진 위원장, 김규선 연천군수, 연천 군의회 이종만 의장, 정찬우 외 5명 등의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연천 양계축산계 회원들은 성금 220만원을 모아 이웃돕기 후원 성금도 기탁하였다. 이번 행사는 양계 축산 발전을 위해 힘쓴 양계 농가들을 위해 개최한 행사로 60여 농가에서 가족 단위로 참석해 지역 양계 농가 간의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